

제117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 초청강연회 자료집

(용암 김낙철과 부안지역 동학)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부 안 문 화 원

제117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대회

# 초청강연회 자료집

(용암 김낙철과 부안지역 동학)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부 안 문 화 원

이 책자는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용암 김낙철과 부안지역 동학

성주현/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 상임연구원

1. 머리말
2. 김낙철 형제와 동학
3. 동학혁명과 김낙철
4. 해월 최시형과 김낙철
5. 맺음말

## 1. 머리말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백년 하고도 17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학혁명은 일부 인물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 전봉준이다. 이외에 김개남과 손화중 등이 있다. 하지만 동학혁명은 이들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동학혁명은 한정되어 있다. 정읍, 고창, 금산 등 일부지역의 활동이 때로는 전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동학혁명을 해당지역의 전유물로 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동학혁명은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기포를 한 후 1895년 5월까지 호남, 호서, 영남, 강원, 황해, 경기 등 관서와 관북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인물과 지역에서 연구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오늘 언급하고 있는 부안지역 마찬가지로 본다.

부안은 동학혁명의 첫 기포를 한 고부와 매우 가까운 지역으로서 동학혁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은 동학혁명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다. 사실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한발 빗겨선 곳이었다. 이는 아마도 부안이 동학혁명에서의 지역적 역할, 그리고 주도 인물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본다. 부안지역의 동학과 동학혁명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용암(龍菴) 김낙철(金洛喆)이 핵심이라고 본다.

용암 김낙철은 1890년 동학에 입도하여 부안지역의 대접주로서 동학혁명에 참여하였고, 동학혁명 이후에는 동학지도부와 함께 활동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안지역의 동학과 동학혁명을 이해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용암 김낙철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부안지역의 동학과 동학혁명 등 일련의 과정을 용암 김낙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김낙철 형제와 동학

부안지역에 동학이 언제 포교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안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동학이 처음 포교된 것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

시기였다. 수운은 1860년 4월 1일 동학을 창도하였지만 포교를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인 1861년이었다. 동학이 포교되자 많은 일반 민중들이 동학에 입교하였다.

이처럼 경주를 중심으로 첫 포교된 동학이 어느 정도 교세를 형성하자 조선정부는 '이단'이라고 하여 탄압을 하였다. 수운은 경주를 떠나 호남지역으로 잠행하였다. 수운이 호남에 일시 정착한 것은 남원 은적암이었다. 은적암에서 과세를 한 후 다시 경주로 돌아갔는데, 이때 호남지역에 첫 포교가 이루어졌다.<sup>2)</sup> 그렇지만 이 첫 포교가 호남지역에서 동학을 크게 포교하는 데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수운이 동학교단 최초의 조직인 접을 조직할 때 호남지역은 없었기 때문이다. 수운이 접을 조직할 당시 동학의 포교지역은 경주를 비롯하여 영해, 울산 등 영남 동부지역, 대구 등 영남 북부지역, 그리고 경기도 남부지역이었다. 일찍이 호남에 잠행하여 논학문 등 주요 경전을 지었지만 교단조직이 형성될 정도로 포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원지역의 포교는 다만 동학이 호남지역에 처음으로 포교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호남지역에 동학이 본격적으로 전래되었을까.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에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한 것은 해월 최시형이 1884년 익산군에 머물렀을 때였다. 동학의 종통을 이은 해월 최시형은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 이후 강원도 영월과 정선, 그리고 충청도 단양 등지에서 은신하면서 동학을 재건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탄압이 지속되자 1884년 해월은 익산 금마면에 있는 미륵산 동쪽 계곡의 사자암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49일 기도를 마친 해월은 육임제(六任制)를 마련하였다.<sup>3)</sup> 이 육임제는 수운 이후 동학교단에서 두 번째 만든 조직체였다.<sup>4)</sup> 그런데 해월이 사자암에 온 것은 익산 출신의 고산접주 박치경(朴致京, 朴致卿)이 주선하였기 때문이었다.<sup>5)</sup> 이로 볼 때 익산군에 동학 조직이 상당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호남지역에 본격적으로 교세가 형성된 것은 1890년대라 할 수 있다.

사자암 49일 기도 이후에도 해월은 호남지역을 순회하면서 포교를 하였는데, 부안지역에서 동학이 포교되기 시작하였다. 부안지역에서 첫 동학에 입도한 인물은 1890년에 입도한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로 추정된다.

김낙철은 1858년 현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쟁갈마을에서 태어났다. 쟁갈마을은 안쟁가리, 용성리, 새말, 송학동 등 네 개의 마을로 형성되었는데, 김낙철은 새말에서 산 것으로 추정된다. 김낙철의 본관은 부안이며, 자는 여중(汝仲), 도호<sup>6)</sup>는 용암(龍菴)이었다. 부안

1) 조선은 '성리학'이 통치이념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였지만 사림파가 정권을 장악한 조선중기 이후에는 성리학 이외에 모든 학문은 이단이라고 하여 철저하게 배척하였다.

2) 『남원군종리원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포덕 2년(1861-필자) 신유 6월에 대신사(수운 최제우-필자) 호남으로 향하사 산천풍토 인심풍속을 관하시고 본군에 到하사, 광한루下 오작교邊 서형칠가에 溜하시고 주인 생질 공창윤가에 숙침하사 유수 십일에 서형칠, 공창윤, 양형숙, 양국삼, 서공서, 이경구, 양득삼, 제현의 동정으로 포덕하시다.”

3) 『천도교서』포덕 25년조.

4) 육임은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인데 이들의 선정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장은 자질이 알차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하고, 교수는 성심으로 수도하여 가히 남에게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도집은 위풍이 있고 기강을 밝혀 경위와 한계를 따질 줄 아는 사람으로 하고, 집강은 시비를 밝히고 가히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대정은 공평하고 근후한 사람으로 하고, 중정은 능히 바른 말을 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정하였다. 해월신사는 이들에게 교단의 중요한 교화를 담당하도록 했다.

5) 『익산종리원연혁』, 『천도교회월보』 189, 1926.9.

6) '道號'는 동학교단에서 사용하는 호이다.

에서 1천여 년을 넘게 터를 잡은 김낙철 집안은 명문고족이었으며, 선대에 5대째 독자로 내려오다가 김낙철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야 형제를 둘 정도로 자손이 귀한 집안이었다.<sup>7)</sup> 집안은 ‘하인이 수십 명이었다’고 전해올 정도로 천석꾼이었다고 한다.<sup>8)</sup> 삼형제 중 장남인 김낙철은 동생 김낙봉과 함께 1890년 6월 7일 동학에 입도하였다. 이어 10일 후인 6월 17일 막내동생 김낙주, 그리고 종제 김낙정과 김낙용도 함께 동학에 입도하였다.<sup>9)</sup>

그렇다면 양반이며 지주였던 김낙철 형제 일가가 왜 동학에 입도하였을까. 당시는 삼불입(三不入)이라 하여 양반, 유생, 부자는 동학에 입도하지 않았다. 김낙철 형제 일가가 동학에 입도한 것은 매우 선진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시천주의 만민평등사상, 보국안민사상, 척왜양의 민족주체사상, 그리고 유무상자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학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동학에 입도한 김낙철은 형제들과 적극적으로 포교하여 1891년 3월에 이르자 따르는 교인이 수천 명이 되었다.<sup>10)</sup> 그러나 동학을 포교하는 과정에서 가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는 김낙철 형제의 포교로 집안에 빈객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다.<sup>11)</sup> 이처럼 부안지역에 동학의 교세가 크게 형성될 즈음 해월 최시형은 공주 보평(溟平) 윤상오(尹相五)의 집으로 이주하였다.<sup>12)</sup> 김낙철은 동생 김낙봉, 김영조, 손화중과 함께 여러 번 문안을 드렸다. 이때 해월 최시형은 “天心을 잃지 않고 食道를 미리 갖추고 氣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또한 먹는 것이 한울님이다”라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다.<sup>13)</sup> 이는 동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수심정기(守心正氣)’와 ‘식고(食告)’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해 7월에는 해월 최시형이 부안 신리에 머물게 되자 교인 수백 명을 이끌고 배알하였다. 다음날 옹정의 부안접주 김영조의 집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날 태인 동곡 김낙삼의 집으로 떠나면서 “부안에 꽃이 피고 부안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김낙철 형제는 더욱 동학을 포교하였는데, 1892년과 1893년에는 관할하는 교인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sup>15)</sup>

이처럼 김낙철, 김낙봉 형제가 부안에서 교세를 확장하던 1892년과 1893년 동학교단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1892년 5월 들어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의 동학교인들이 관헌과 지역 토호들의 탄압에 견디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기기 시

7) 「김낙봉 이력」, 『동학동민혁명국역총서』5, 동학농민혁명참가자명예회복심위위원회, 2009, 220쪽.

8) 허철희, 「동학대접주 용암 김낙철」, 『부안21』, 2003.1; 「부안에서의 동학」, 『부안독립신문』2009년 5월 5일자; 박맹수, 『사료로 본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모시는사람들, 2009, 174쪽. 「김낙봉 이력」에는 “아버지 대에서 형제분이 나와 맨손으로 집안을 이루어 몸소 수만 환(圓)의 재산을 이루었다”라고 하였다.

9) 「天宗列賢錄」, 『구약종보』2, 1914.7, 61쪽; 『용암성도사역사약초』; 「김낙철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7쪽.

10)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7쪽;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74쪽.

11) 「김낙봉 이력」, 『동학동민혁명국역총서』5, 220쪽.

12) 이에 대해 「김낙봉 이력」에는 1890년 가을 해월 최시형이 김연국과 함께 공주 신평 윤상오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은 김낙봉이 잘못 기록한 것이다.

13)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7쪽.

14)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7-168쪽;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0-221쪽. 그런데 이 기록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낙철은 1891년 7월 김영조의 집에서 김낙삼으로 떠날 때이고, 김낙봉은 같은 해 5월 금구 김덕명의 집에서 한 것으로 각각 기록하였다.

15) 「김낙철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작하였다. 이들은 갈 곳이 없자 동학지도부가 있는 보은 장내리와 금구 원평으로 모여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학의 공인이었다. 즉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동학의 증견지도자인 서병학과 서인주는 이해 7월 처음으로 교조신원운동을 추진하였다.<sup>16)</sup> 서병학과 서인주는 해월 최시형을 찾아가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해월 최시형은 “때를 기다림만 못하다”고 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였다.<sup>17)</sup> 그러나 서인주와 서병학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교조신원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해월 최시형은 이해 10월 공주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11월에는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을 재차 전개하였다.<sup>18)</sup> 그런데 이 두 차례의 교조신원운동에 김낙철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낙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서장옥이 교조신원운동을 할 때, 성훈에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말하며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다.<sup>19)</sup>

이는 김낙철, 김낙봉 형제가 공주와 삼례에서 전개한 두 차례의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낙철, 김낙봉 형제는 왜 교조신원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는 김낙철과 김낙봉의 연원<sup>20)</sup>이 김연국계였기 때문이다. 김연국계에서 정리한 『해월선생문집』에 의하면, 공주와 삼례의 교조신원운동은 해월 최시형의 허락없이 서인주와 서병학이 주도로 전개한 것으로 기록하였는데,<sup>21)</sup> 이러한 인식은 김연국계인 김낙철 형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듬해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광화문 교조신원운동은 공주와 삼례에서 교조의 신원을 지방 관찰사를 상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전개한 것이다. 1893년 3월 29일 왕세자 탄신일을 맞아 전개된 광화문교조신원운동은 소두 박광호를 비롯하여 김연국, 손병희, 손천민, 박인호, 김낙철 형제 등이 참여하였다.<sup>22)</sup> 이에 대해 김낙철과 김낙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계사년 3월에 대선생님(수운 최제우-필자)의 신원을 하려 동생 낙봉이 김영조와 교도 몇 백 명과 함께 서울에 갔으나 대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때 나는 도내의 도도집을 맡고 있었다.<sup>23)</sup>

그러다가 다음해 계사년(1893년-필자) 봄 대궐 문 앞에서 복합상소를 할 때에 참여하였다.<sup>24)</sup>

16) 『천도교서』, 포덕 33년조; 『해월선생문집』임신년조.

17) 표영삼, 『동학』2, 통나무, 2005, 196쪽. 해월 최시형의 신중함은 1871년 영해교조신원운동에서 많은 교인들이 희생당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영해교조신원운동은 병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인주와 서병학의 요청 또한 병란적으로 전환될 것을 염려하였다.

18) 오지영, 『동학사』, 영창서관, 1938, 70쪽.

19)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1쪽.

20) 동학에서 연원의 의미는 전교인과 수교인의 관계이다. 김낙철과 김낙봉은 1891년 3월 해월 최시형이 공주 보평에 머무를 때 김연국이 수행하였다. 이때 김낙철 형제는 김연국과 연원관계를 맺었고, 동학교단이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화될 때 김연국을 따라 시천교로 갔다.

21) 표영삼, 『동학』2, 205-206쪽.

22) 『동학도종역사』계사년조; 『해월선생문집』계사년조; 『천도교회사초고』계사년조.

23)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24)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1쪽.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 얼마나 많은 동학교인들이 참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김낙철 형제는 부안지역 동학교인 수백 명을 이끌고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낙철은 당시 도도집(都都執)으로 호남지역 동학교단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광화문교조신원운동 결과 왕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 소원에 따라 벼풀어 준다고 하였지만<sup>25)</sup> 실제적으로는 동학교인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하였다. 김낙철은 광화문교조신원운동 이후 상황을 “이때부터 각도와 각읍에서 지목이 크게 일어나 붙잡힌 자와 죽음을 당한 자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sup>26)</sup>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김낙철은 선약으로 병을 구제하는 일을 하며 동학을 포교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sup>27)</sup>

광화문교조신원운동에서도 동학공인을 획득하지 못한 동학교단은 3월 10일 수운 최제우 순도일을 기해 충북 보은 장내리에서 다시 한 번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에 동학교단 『』지도부는 충북 청산군 포전리에서 수운 최제우 순도향례를 한 후 팔역의 도인은 장내로 모이라는 통유문을 발송하였다.<sup>28)</sup> 그런데 이 통유문에는 기존의 교조신원 뿐만 아니라 외세에 대한 저항 즉 반침략의 내용을 포함하였다.<sup>29)</sup> 이는 앞서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 과정에서 서구열강들의 침략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보은의 교조신원운동은 척왜양창의운동으로 전환되었다.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통유문을 받은 김낙철은 동생 김낙봉과 함께 부안지역 동학교인들을 이끌고 보은 장내로 향하였다. 보은 장내에는 각지의 동학교인들이 집결하여 수만 명에 달하였다. 해월 최시형은 보은에 집결한 각 포의 조직에 포명을 부여하는 한편 대접주를 임명하였다. 『동학사』에 의하면 부안대접주에 김낙철이 임명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sup>30)</sup>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는 보은 장내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김낙철의 기록에는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김낙봉 역시 보은으로 향하였지만 고산(高山)까지 밖에 못 갔던 것이다. 김낙봉은 보은 척왜양창의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연이어 계사년 3월 보은 장내에 입회가 있어 고산 등지로 올라갔다가 해산하라는 명령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나중에 올라가 뵈었다.<sup>31)</sup>

즉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는 보은으로 가던 중 고산에서 해산 명령을 듣고 되돌아온 것이다. 결국 김낙철은 척왜양을 기치로 내건 보은 장내리에 참가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 3. 동학혁명과 김낙철

25) 『시천교종역사』 제2편 계사년조.

26)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27)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28) 『천도교회사초고』 계사년조; 『동학도종역사』 계사년조.

29) 외세에 대한 반침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밖으로는 침략세력이 더욱 떨치게 되었다. (중략) 생각다 못해 다시 큰 소리로 원통한 일을 진정하고자 이제 포유하니 각 포 도인들은 기한에 맞추어 일제히 모여라. 하나는 도를 지키고 스승님을 받들자는데 있고, 하나는 나라를 바로 도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계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30) 오지영, 『동학사』, 83-84쪽.

31)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1쪽.

동학혁명의 첫 기포는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고부기포는 전봉준을 비롯하여 사발통문에 참여한 20명이 주동이 되었다. 전봉준 등 동학교인과 농민들은 고부관아를 점령한 후 이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백산으로 이동하였다. 백산에서 옛 성을 수축하는 한편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처럼 전봉준이 고부에서 동학혁명의 첫 기포를 하였지만 김낙철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하지 않았다. 우선 김낙철은 고부기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갑오년 3월부터 고부 전봉준이 민요의 장두로서 고부 경내의 인민을 선동한다는 말이 들리므로, 은밀히 그 속을 탐문해 보았더니 외면은 민요의 장두이나 내면은 스스로 동학의 두목이라 부르며 다른 사상을 품고 있었다.<sup>32)</sup>

김낙철은 전봉준의 고부기포를 민요(民擾)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동학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봉준의 고부기포에 대한 동향 파악을 무엇보다도 우선하였다. 그가 파악한 동향은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상’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의 동생 김낙봉은 “고부의 전봉준이 자신의 아버지가 해당 군수 조병갑의 손에 죽은 일을 보복하기 위해 민란을 일으켰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sup>33)</sup>라고 하여,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학사』는 전봉준의 아버지와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전략) 古阜郡守 趙秉甲이는 그것을 奇貨로 여기어 민간에 勒擄하게 되는 것이며, 기타의 것도 모두 무리로 濫擄하게 되어 古阜 백성들은 극도로 격분이 생기어 古阜 16面 수백 동리에 있는 수만 명의 인구들은 일시에 일어섰다. 그 백성 중에 狀頭로 나선 사람은 全彰赫, 金道三, 鄭一瑞 등 세 사람이며 세 사람 중에는 全彰赫이 首狀頭가 되었었다. 古阜 백성들은 이 여러 가지 원통한 사정을 들어 本 郡守 趙秉甲에게 等訴를 하였다. 郡守 趙秉甲이는 이것을 亂民이라고 하여 狀頭 세 사람은 곧 때려 가두고 全羅監營에 報狀을 올려 세 사사람은 監營에 移囚하게 되어 여러 백성들은 두들겨 몰아냈다. 이때 전라감사 金文鉉은 狀頭들이 많은 백성들을 誦동시켜 亂을 일으킨 것이라 하여 嚴刑으로써 狀頭를 징벌한 후 다시 命을 내리어 古阜 本獄으로 移囚하고 嚴刑納考하라 하였음으로써 狀頭 세 사람은 모두 古阜郡에 내려와 重杖을 맞고 獄中에 滯囚하였는 바, 首狀頭 全彰赫은 마침내 獄中에서 杖斃되고 말았다.<sup>34)</sup>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고부군민을 대표하여 등소할 때 수장두로 나섰다가 죽음을 맞은 것이다. 이에 전봉준은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동학 우두머리라 칭하고 민요를 일으킨 것으로 보았다. 즉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는 전봉준의 고부기포를 사적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고부기포의 동향 보고서를 동생 김낙봉으로 하여금 청산 문암리에 있는 해월 최시형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해월 최시형은 “이것도 시운이니 금할 수가 없다”라고 고부기포의 당위성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해월 최시형은 김낙봉에게 “너는 형과 상의

32)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33)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1쪽.

34) 오지영, 『동학사』, 103-104쪽.

하여 접의 내부를 정중히 단속하고 숨어 지내는 것을 위주로 하라”고 하면서 답장과 첩지 4천여 매를 주었다.<sup>35)</sup> 즉 전봉준에 동조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김낙철은 관내 각접에 해월 최시형의 뜻을 전달하고 수도에만 매진하였다. 김낙철은 해월 최시형이 동생 김낙봉에게 전한 비밀지령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 봉준은 교인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의 사형(김낙철-필자)과 상의하여 절대 상관하지 말고 몰래 각 접에 기별해서 비록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도 상관하지 말고 모두 지휘에 따라 봄을 기다리라.<sup>36)</sup>

한편 고부기포를 주도하였던 전봉준은 고부관아를 점령하는 한편 새로 임명된 고부군수 박원명과 관민화합의 책을 마련하였지만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는 오히려 동학교인들을 탄압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고부기포에 참여하였던 동학군을 해산하고 정읍대접주 손화중<sup>37)</sup>에게 의탁하였다. 이어 3월 20일 무장 공음지에서 포고문을 발표하고 재차 기포하였다.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은 굴치를 넘어 고창을 점령하였다. 이어 일부는 정읍과 고부를, 그리고 일부는 흥덕을 지나 부안으로 진출하였다. 부안으로 향하던 동학군은 사진포에서 하루를 묵은 후 3월 22일 오전 10시경 부안 줄포로 향하였다. 줄포는 부안대접주 김낙철의 관내로 이곳으로 동학군이 진출한 것은 김낙철포와 연대를 하기 위함이었다. 줄포를 잠시 점거한 동학군은 오후 6시 줄포를 떠나 오후 8시경 고부에 이르렀다.<sup>38)</sup>

이처럼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군이 부안지역으로 진출하자 김낙철은 전봉준과 연대를 하지 않고 부안지역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이에 대해 김낙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뜻밖에 전봉준이 고부성을 무너뜨린 뒤에 각처의 교인을 선동하여 보전하기 어려울 때에 다시 각처의 무리배가 전봉준과 김개남의 포에 몰려들어 각읍을 어지럽혔다. 그 때에 부안군수 이철화씨가 향유 및 이호와 상의하고 여러 차례 요청하기를, 고을 일이 어떤 지경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들어와서 성을 지켜 외적을 막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오년 4월 1일 교인 수백 명과 함께 서도 송정리 신씨네 재각에 가서 도소를 설치하였다. 그대에 군수가 향촌의 유생 및 이호와 함께 경내의 호에 배정하고 난 뒤에 다시 부민인 요호에게 배정하였다. 동생 낙봉은 신소능과 함께 부안 줄포에 도소를 설치하였다.<sup>39)</sup>

이 글에 의하면, 전봉준이 무장에서 기포한 후 부안으로 진출하자 부안군수 이철화는 김낙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낙철은 4월 1일 교인 수백 명과 함께 송정리에, 그리고 동생 김낙봉은 줄포에 도소를 설치하였다.

김낙철이 도소를 설치한 이틀 후인 4월 3일 전봉준과 손화중은 동학군 4천여 명을 이끌고 부안으로 들어와 군수 이철화를 처형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낙철은 손화중을 달래 화를 모면하였다. 그렇다고 김낙철이 동학혁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김낙철이 손화중에게 부안을 자신에게 맡겨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손화중은 부안에서도 호응한다면 그렇게 하겠

35)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1쪽.

36)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8쪽.

37) 손화중은 1893년 3월 보은 장내리에서 개최된 척왜양창의운동에서 정읍대접주로 임명되었다.(오지영, 『동학사』, 83-84쪽)

38) 『수록』, 1894년 3월 27일 계초;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3, 6-7쪽.

39)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9쪽.

다고 하였다. 이에 김낙철은 “나도 갈 터이니 진을 옮기라”고 하여 동학혁명에 동참하였다.<sup>40)</sup> 이후 김낙철 김낙봉 형제는 전봉준, 손화중과 함께 고부로 진출하여 황토현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황토현 전투 이후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는 더 이상 전봉준, 손화중과 연대하지 않고 부안으로 돌아왔다.<sup>41)</sup>

그렇지만 해월 최시형이 9월 18일 총기포령을 내리자 김낙철은 부안에서 기포하였다. 당시 부안에서 기포한 동학지도자는 김석운, 신명언, 강봉희, 신운덕, 이준서, 신규석 등이 있다. 김낙철 등은 호남과 호서지역 동학군이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논산으로 가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안에 남아서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정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부안은 전란임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였다.<sup>42)</sup>

김낙철이 무력적으로 부안관아를 점령하지 않고 군수와 유생들의 요청을 받아 도소를 설치한 것은 급진적인 사회변혁보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점진적 변혁을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sup>43)</sup>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안지역에서 동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누대를 살아온 김낙철 가문과 천석꾼이면서도 동학에 입도한 김낙철, 김낙봉 형제의 성품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동학혁명 기간 부안에서는 관과 유생, 그리고 동학의 관민상화(官民相和) 내지 민중자치(民衆自治)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김낙철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봉준, 김개남, 정일서의 포가 동도라고 하여 각 포구와 부민을 어지럽히는 것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밤낮으로 힘을 내어 방어를 하였다. 그래서 온 고을(부안-필자)이 편안하기를 요순시대와 같아서 온 고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sup>44)</sup>

한편 동학혁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김낙철은 제주도 유민들을 구제하였다. 제주도는 1893년과 1894년 두해동안 가뭄이 들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제주도민들은 호남 지역 각 포구로 나가 식량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포에서 식량을 구하던 제주도 유민들을 보살펴 주었던 것이다. 이들은 훗날 김낙철이 옥중에 있을 때 구명운동을 하기도 하였다.<sup>45)</sup>

40)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4-225쪽.

41)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5쪽.

42) 「김낙봉 이력」,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225-226쪽. 이에 대해 김낙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10월에 군수 윤시병씨가 새로 부임해서 형에게 말하기를 “이곳에 와서 탐문해보니, 온 경내의 인민이 그대의 덕으로 살게 되었다고 한다. 위로부터 하는 일은 내가 맡을 것이니 탁란배의 금지는 그대가 담당하라고 하여 서로간에 의리가 자연히 특별하였다.”

43) 「기획연재 정재철의 부안사람들」, 『부안 21』, 2005.6.14.

44)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9쪽.

45)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78-179쪽. 김낙철의 제주도민 구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루는 나주 수성군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안 김모 형제(김낙철 형제를 말함)가 삼십여 명 죄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났는지 아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주 뱃사람 사 오십 명이 배를 타고 영광 등지를 지나다가 부안 대접주 김낙철 김낙봉 형제가 나주 진영에 잡혀 수감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우리들이 갑오년에 제주도가 흉년이 들어 경내 몇 만 명이나 되는 인민들이 거의 굶어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나 다행히 부안 김모 형제의 애휼지덕(愛恤之德)을 입어서 몇 만 명 목숨이 보존되었는데, 만약 김모 형제가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하늘이 어찌 돌아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들이 김모 형제를 대신하여 나주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김모 형제를 구활(救活)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하고 일제히 나주군으로 들어가 목사 민모 씨에게 등장(等狀·청원서)을 올려 호소하기를, 제주도가 계사(1893년) 갑오(1894년) 두 해에 홀로 큰 가뭄을 만나 경내 몇 만 명

동학혁명이 끝나갈 무렵인 12월 12일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는 일경에 피체되었다. 동학혁명 과정에서 부안부접주로 활동하였던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관군과 일본군과의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김낙철은 쉽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학을 토멸하고자 하였던 일본군들은 김낙철, 김낙봉 형제를 피체한 후 부안을 거쳐 나주감옥에 갇혔다. 이후 전주로 압송하기 위해 출발하였으나 김제-고부-정읍-장성-나주 북창점-장성을 거쳐 1895년 1월 3일 다시 나주옥에 감금되었다. 이때 전봉준, 손화중, 이방언 등도 함께 있었다. 나주옥에서 6,7일을 묵은 뒤 김낙철 형제는 장성-정읍-금구-전주-여산-노성-공주-천안-수원을 거쳐 서울에 도착 진고개에 있는 일본순사청에서 신문을 받은 후 감옥소에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4,5차례 더 조사를 받은 후 3월 21일 김방서, 이방언과 함께 풀려났다.<sup>46)</sup> 앞서 언급하였듯이 김낙철 형제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민의 구명운동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47)</sup>

동학혁명 과정에서 김낙철의 활동은 혁명가로서보다는 종교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그가 동학혁명 이후 활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월 최시형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김낙철의 참모습을 알 수 있다.

#### 4. 해월 최시형과 김낙철

1890년 6월 7일 동학에 입도한 김낙철은 김연국을 연원<sup>48)</sup>으로 하여 일생을 동학교인으로 살았다. 특히 스승으로 모셨던 해월 최시형과의 관계는 각별하였다. 자신의 목숨을 대신 할만큼 받들어 모셨다.

동학혁명 이후 고향에 돌아온 김낙철은 1896년 2월 9일 부안 하동면 신성리로 이거하였다. 그러면서도 김낙철은 교단지도부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관내의 동학조직을 재건하였다.<sup>49)</sup> 이거에 앞서 1895년 7월 임실의 김학종을 통해 해월 최시형을 만나 빈 김낙철은 1896년 4월 상주 고대촌에 머물던 해월 최시형을 찾는 등 꾸준히 동학교단을 찾아 가르침을 받았다. 1890년대 후반 들어 동학교단은 구암 김연국, 의암 손병희, 송암 손천민 삼암이 교단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는데, 김낙철은 구암 김연국을 따랐다. 그러나 최후에는 구암 김

---

생령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 생선 등을 배에 싣고 전라도 각 포구에 이르러 곡식과 바꾸려고 할 즈음에 다른 포구에서는 탁란군(濁亂軍·동학농민군)에게 배에 실었던 물건을 모두 빼앗겼으나 오직 부안의 각 포구에서는 흑시라도 탁란군에게 물건을 빼앗기면 김모가 죽시 사람을 보내어 추급(推給·물건 값을 셈하여 지불함)했기 때문에 단 한 흡의 곡식도 잃어버리지 않아 제주 경내 인민들이 부안군의 조맥(租麥·쌀과 보리)으로 모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이것은 바로 김모 형제의 덕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만일 김모 형제를 죽이시려면 소인들을 죽이시고 김모 형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니, 목사 말하기를 이 죄인들은 김여중 김명중이요 김낙철 김낙봉이 아니라고 하였다. 뱃사람들이 다시 여쭙기를 여중 명중은 자(字)요, 낙철 낙봉은 이름이옵니다 하니, 목사가 의아하게 여겨 하인 한 명을 부안군으로 보내 김모 형제의 자와 명을 자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였다. 하인이 부안군으로 가는 길에 흥덕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이르러 사람들에게서 여중 명중은 자요 낙철 낙봉은 이름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 보고하기를 하나는 자요 하나는 명이라고 보고를 하니, 목사가 탄복하면서 폐하에게 장계(狀啓·보고문서)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46)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69-174쪽.

47)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80쪽.

48) 「天宗列賢錄」, 『구약중보』2, 1914.7, 61쪽

49) 이 시기 김낙철 관내의 조직과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咸平에 全章燮 金仁奎 鄭櫛容 鄭浩準 鄭驥兌 吳權善 李敦生 鄭潤彬 周東潤, 沃溝에 梁奇容, 扶安에 金鍾浩 金尙三, 泰仁에 趙仲衡, 金堤 朴基柱 金學權, 古阜에 蔡成云 白永德 朱淳凡 吳學穆, 咸平에 鄭櫛容, 潭陽에 金仲鉉 李煉相, 昌平에 姜在貞, 扶安에 崔贊植 李道仲 朴成基이라”

연국과 결별하고 천도교로 돌아와 의암 손병희를 따랐다.

1897년 8월 해월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군(현 경기도 여주군) 전거론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해월 최시형이 전거론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한 인물은 임순호였다. 임순호는 여주 출신으로 동학혁명에 참여하였다가 고향에 돌아왔지만 관의 추적으로 떠돌이 행상으로 생활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의암 손병희와 교류하면서 1896년 10월 전거론에 두 채의 집을 마련하였다.<sup>50)</sup> 두 채 중 하나는 해월 최시형과 구암 김연국과 김낙철, 김낙봉 등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암 손병희, 손병흠 등과 함께 거주하였다. 김낙철, 김낙봉 형제는 지근거리에서 해월 최시형을 보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에 머물 때 해월 최시형은 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서 내려온 '이교관'이라고 하면서 은신 중이었다.

이처럼 철저히 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은신 중이었지만 1898년 1월 4일 권성좌가 관병 20여 명을 대동하고 해월 최시형을 잡으러 왔다. 권성좌는 이천 보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구암 김연국의 연원이었다.<sup>51)</sup> 권성좌는 고문에 못이겨 해월 최시형의 거처를 알고 있다고 자백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김낙철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나 뜻밖에 무술년(1898-필자) 1월 4일 이른 아침에 이천의 권성좌가 병사 20여 명을 데리고 원주군 전거리의 구암 어른 집으로 왔다. 구암 어른이 마침 해월선생님을 모시고 계셔서 집에 있지 않았고 나만 방안에 있었다. 병사들이 집을 에워싸고 권성좌는 관인 한 명과 함께 들어와서 말하기를, 최법헌, 손응구(손병희-필자), 김치구(김연국-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나는 은진 사람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5,6일 전에 주인 이 아무개가 이곳에서 훈학을 해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인의 성을 이씨로 알고 있고, 최법헌 손응구 김치구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성좌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거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에, 최법헌과 손응구는 지금 처음 들었고, 주인 이씨는 그저께 성묘를 하러 광주로 갔다고 하였다. 성좌가 말하기를, 허기와 갈증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니 김치구 한 그릇과 냉수 한 그릇을 달라고 하기에, 안방에 들어갔더니 사모님께서 안색이 죽을 지경처럼 변해있었다. 그래서 은밀히 말하기를, 만약 안색이 변하면 저 병사들이 안색을 보고 의심할 것입니다. 안심하고 편하게 지나시면 이 사람이 무사히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안색이 조금 풀어지셨다. 김치와 물을 내어주니 순식간에 모두 달게 먹어버리고 병사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sup>52)</sup>

권성좌가 병정 20여 명을 이끌고 해월 최시형을 잡으러 왔을 때 다행히 집안에 없어서

50) 임순호, 「해월신사의 은도시대」, 『천도교회월보』 248, 1931.8, 12-15쪽.

51) 권성좌는 해월 최시형이 이천 앵산동이 있을 때 구암 김연국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52)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86-187쪽.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임순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튿날(1월 4일-필자) 강암(손병흠-필자)이 들어와서 병정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한패는 권성좌를 데리고 구암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성사(손병희-필자), 강암, 염창순, 나 네 사람이 해월신사를 모시고 있었는데, 성사께서 문득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 번 시험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사께서는 천명을 순히 함만 갖지 못하다 하실 뿐이었다. 구암 집에는 그때 구암 김낙철 김낙봉 염창순 여러 분이 있었다. 병정들은 구암 집에 가서, 이 가운데 누가 최법헌이며 이웃집에 사는 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구암은 나는 본시 서울 사람으로 낙향한 이모(李某)인데 뒷집에 사는 이는 내 삼촌과 사촌이요 이렇게 말을 하니 권성좌 역시 이 가운데 없다고 하여 병정들을 권성좌를 끌고 신사 댁으로 와서 신사 계신 방문을 열고 힐난하는지라. 성사께서는, 너희들이 보는바와 같이 80노인이 몇 달째 병환으로 누워계신데 이렇게 무도한 법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애미 애비도 없느냐 이렇게 꾸짖었다.”(임순호, 「해월신사의 은도시대」, 『천도교회월보』 249, 1931.9, 5쪽)

체포를 모면하였다. 하지만 김낙철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넘겨야만 했다. 일단 자신은 은진 사람으로 주인 아들의 훈장이라고 위장하였다. 그리고 해월 최시형을 모른다고 발뺌하였다. 해월 사모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김낙철의 기지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일단 위기를 모면한 김낙철은 바로 피하고 싶었으나 이후 해월 최시형에게 닥칠 위기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아마도 김낙철의 심적 갈등은 매우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낙철은 당시의 심정을 “만약 내가 피해 가버리고 저들이 다시 와서 선생님(해월 최시형-필자)과 구암 및 의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두 잡아간다면 도(동학-필자)가 없어질 것이다.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정하였다. 나라를 위해 죽는 신하와 선생을 위해 죽는 제자가 마찬가지로이다”<sup>53)</sup>라고 하였다. 즉 스승인 해월 최시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한 김낙철은 바로 해월 최시형을 뺀고 자신이 대신 잡혀갈 것을 요구하였고, 해월 최시형은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잠시 후 권성좌는 다시 병정에 이끌리어 구암의 집으로 왔고, 김낙철은 해월 최시형 대신 피체되었다. 김낙철은 여주를 거쳐 이천으로 압송된 후 고문을 당하는 등 악형을 받았다. 며칠 후 장방청(감옥)에 수감되었다. 이때 이용구,<sup>54)</sup> 신택우, 전정읍 등도 함께 수감되었다. 다시 며칠 후 서울로 압송되어 경무청으로 이감되었다. 동학혁명 직후 이미 이곳에서 신문을 받은 바 있는 김낙철에게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지만 김낙철은 횡설수설 하는 등 일부러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얼마 후 김낙철은 이용구 등과 함께 수원으로 이감되었다. 이곳에서 이용구 등은 5월경에 풀려났지만 김낙철은 돈이 많다고 하여 여전히 옥중에 있다가 7월 13일에서야 석방되었다. 김낙철이 석방된 것은 해월 최시형이 이해 4월 5일 피체되어 6월 2일 순도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동학의 도주인 해월 최시형의 안위를 위해 그토록 극심하였던 악형을 참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보람도 없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석방된 김낙철은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스승인 해월 최시형을 구하고자 하였는데, 스승이 순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김낙봉과 함께 수원 남문에 올라가 봉두난발로 북쪽을 향해 사배를 하고 마음으로 곡을 하였다. 교종의 일이 궁금하여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구암, 의암, 송암의 거처를 알 수 없어 고향인 부안으로 내려왔다. 고향에 돌아온 김낙철은 영학당 봉기에 참여하였다가 관의 추적을 받기도 하였다.<sup>55)</sup>

해월 최시형의 순도 이후 동학은 크게 위축되었다. 김낙철은 고향인 부안을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김낙철은 옛 동학교인들 찾아가 “요순공맹이 수천 년 전에 죽었으나 그 덕이 오늘에 미치고 있거늘, 해월 최시형의 육신은 비록 돌아갔지만 그 덕화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설득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낙철은 동학을 재건하는데 절치부심하였다.

1900년 동학교단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이해 3월 10일 정산에서 수운 최제우 순도향례를 하였다. 이때 김낙철과 김낙봉 형제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날 팔역편의장으로 임명되었다.<sup>56)</sup> 이후 동학교단은 구암 김연국의 피체, 송암 손천민의 순도, 의암 손병의 일본 외유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1904년 갑진개화운동을 거친 후 동학교단은 근대적 종교로 전환하였다. 즉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大告天下)하였다. 이어 이듬해 1906년 천도교중앙

53)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87쪽.

54) 이용구는 충주 외서촌에서, 신택우는 음죽 앵산동에서 각각 피체되었다.

55) 박맹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176쪽.

56) 「김낙철 역사」,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5, 196쪽.

총부를 설립되자 김낙철은 봉도실 우봉도, 고문실 고문으로 선임되었다.<sup>57)</sup> 그런데 이 시기 천도교에는 분화가 있었는데, 일진회를 이끌던 이용구 등 62명이 천도교로부터 출교 당하자 시천교를 설립하였다. 구암 김연국이 이용구를 쫓아 시천교로 가자 김낙철도 시천교에 합류하였다. 이용구의 사후 시천교는 송병준의 시천교와 김연국의 시천교로 다시 분화될 때 김연국의 시천교에서 활동하였다. 시천교에서는 관도사(觀道師)의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14년 11월 그믐 “잘못했구나. 잘못이로다! 나의 출신이여. 의암 선생은 바로 해월 선생의 정통연원이고 3명 중에 주장의 임명을 받았다. 내가 이제 정통주장의 연원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갑수를 불러 지난날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갑수로 하여금 김낙철의 심정을 전달케 했다. 의암 손병희의 양해 아래 김낙철은 시천교와 절교하고 천도교에 귀의하였다. 1915년 2월 3일 의암 손병희를 찾아 전수식을 갖고 성도사에 선임되었다.<sup>58)</sup> 이후 종교적 수행에 전념하던 김낙철은 1917년 12월 22일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sup>59)</sup>

## 5. 맺음말

이상으로 용암 김낙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김낙철은 동학이 창명되기 2년 전인 1858년 부안 쟁갈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안에서 누대를 살아온 김낙철 가문은 아버지 대에 이르러 천석꾼의 지주로서 자리 잡았다. 당시 동학에는 ‘삼불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유생, 양반, 부자는 동학에 입도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0년 6월 7일 동생 김낙봉과 함께 동학에 입도하였다. 동학에 입도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천주의 만민평등사상, 후천개벽의 혁세사상, 척왜양의 민족주체사상, 그리고 유무상자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동학사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김낙철은 선진적이고 매우 진보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역사의 대의를 위해 온 몸을 내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낙철은 동학에 입도한 후 종교적 신념을 철저히 지킨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그가 평생을 스승으로 모셨던 해월 최시형의 영향을 받았다. 해월 최시형은 급진적인 사회 변혁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동학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김낙철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김낙철은 1894년 1월 10일 교부에서 전봉준 동학교인들이 동학혁명의 첫 기포를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동향을 파악하여 해월 최시형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해월 최시형의 뜻에 따라 자중하면서 부안지역에서 관민상화를 도모하였다. 그러한 인품으로 김낙철은 부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었다. 또한 동학혁명 때 제주도민을 구출하는 등 민중을 위한 지도자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동학의 유무상자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7) 이동초 편, 『천도교회 종령존안』, 모시는사람들, 2005, 465-466쪽.

58) 그러나 『천도교회월보』에 의하면 1917년 11월 23일 천도교에 귀의한 것으로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인의 참회식 시천교 법도사 김낙철 이하 이훈범 정갑수 정원섭 김영식 김연식 강소영 최난수 제씨는 시천교로부터 본교에 귀하여 참회식을 행하고 更히 교무에 종사하다.”(『중앙총부회보』, 『천도교회월보』59, 1917.12, 35쪽)

한편 김낙철은 천도교에 귀의하면서 「시천교에 대한 포고문」과 「시천교주 김연국에게 송한 서한문」을 각각 게재되었다. 또한 김낙철은 성도사에 선임되었다고 하는데, 1915년에는 천도교에 ‘성도사’라는 직책이 없다. 1917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도사’를 임명하였다.

59) 「고성도사 김낙철씨의 장례식장에서」, 『천도교회월보』90, 1918.1, 35-40쪽.

동학혁명 이후에는 일본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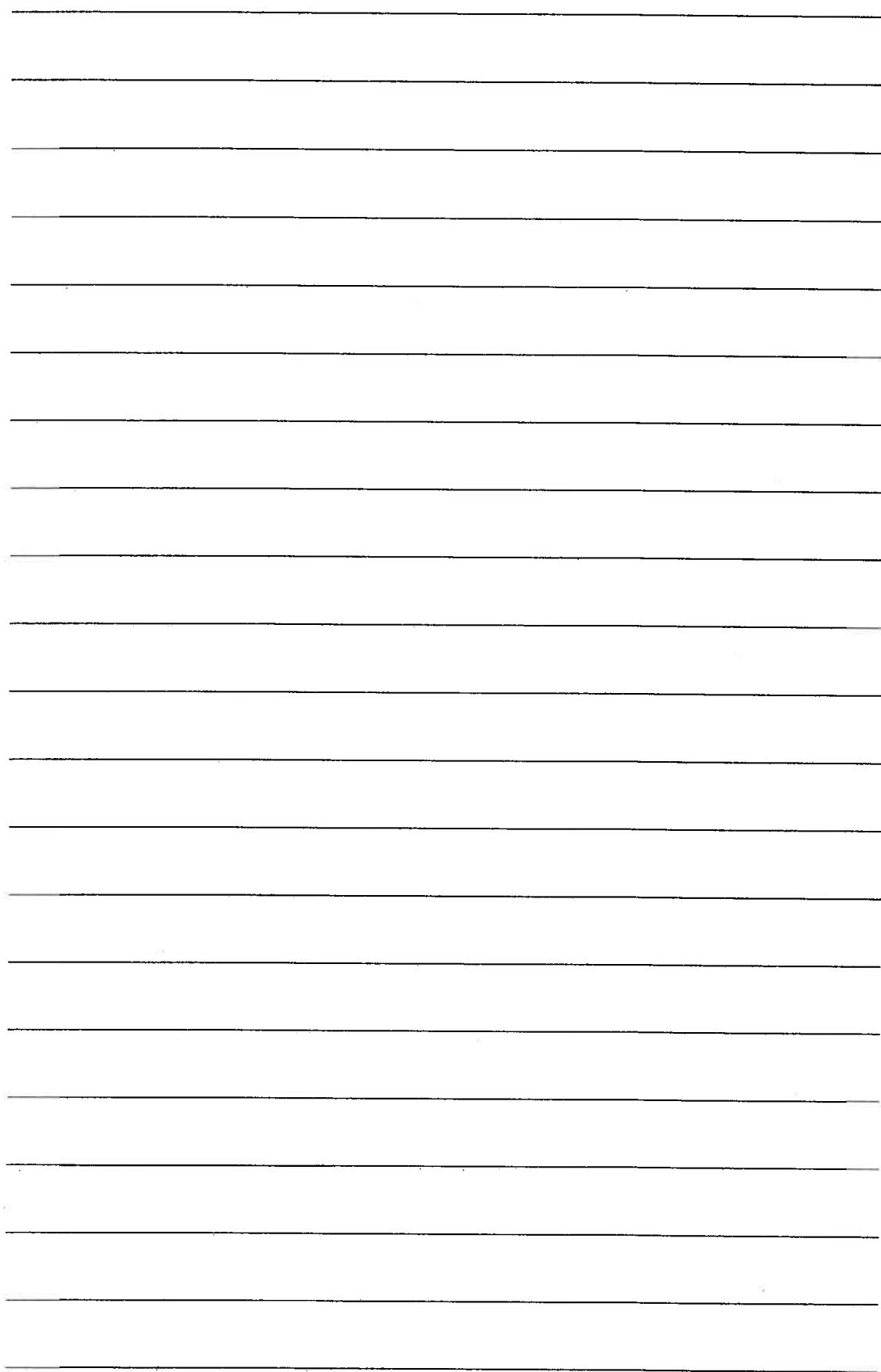
김낙철의 삶 중 가장 극적인 활동은 스승 해월 최시형을 대신하여 피체와 옥고를 치룬 것이 아닌가 한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학을 지키고자 하였던 결심은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인물인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김낙철은 구암 김연국의 연원으로 시종 그와 함께 하였다. 1906년을 전후하여 천도교를 떠나 시천교에 합류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종교에서 연원을 중요시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시대를 읽는 예지력에서는 흠집을 남기는 오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의암 손병희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천도교에 귀의함으로써 그 오점을 씻을 수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낙철은 참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한 혁명가임에는 틀림이 없다.





memo



memo

